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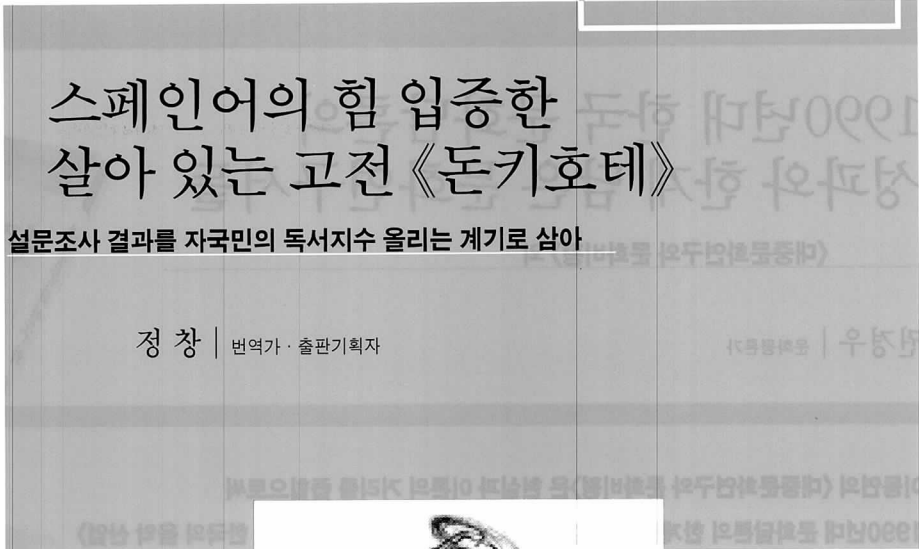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전후해 스페인에 선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그 가운데 지난해 출판 결산 소식과 스페인어의 힘을 빛낸 기쁜 소식이 있었다. 하나는 2001년 독서계와 출판시장을 주도한 작가와 책이 '책의 날'을 앞두고 분야별로 발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르웨이 북클럽과 노벨상 위원회에서 기획한 설문조사에서 세르반테스의 고전소설 《돈키호테》가 유사 이래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선정된 것이다.

설문조사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책 선정해

먼저 2001년 한해 동안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켄 폴릿의 역사소설 《지구의 대들보(Pillars of the Earth)》다. 스페인 출판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J. R. R. 톨킨의 《반지의 제왕》, 프랭크 맥코트의 《안젤라의 유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독자가 가장 많이 구입한 책은 페레스 레베르테의 《항해도》와 4편의 시리즈 소설(《캡틴 알라트리스테》 등), 이사벨 아엔테의 《영혼의 집》과 《먹물로 그린 자화상》, 파울루 코엘료의 《연금술사》 등이다. 20세기 이전 출간작으로 《돈키호테》와 《성서》가 포함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 번역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언급한 세 작품 외에 노아 고든의 《의사》, 아서 골든의 《어느 게이샤의 회상》, 토마스 헤리스의 《한니발》 등이다. 또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는 주제 사라마구의 《동굴》, 헬렌 필딩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 바르가스 요사의 《치보의 축제》 등이 순위에 올랐다. 스페인 작가 가운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작가는 페레스 레베르테를 필두로 세르반테스, 안토니오 갈라, 미겔 델리베스, 곤살로 토렌테 바에스테르, 카미노 호세 셀라, 알베르토 바스케스 피게로아, 후안 호세 베니테스 등이다.

또한 논픽션 분야는 필라르 우르바노의 《가르손, 동트는 새벽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와 《여왕》, 페르난데스 알바레스의 《미친 여왕 후아나》 등의 전기 작품들 그리고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가장 많이 읽혔다. 이밖에 청소년 문학 분야는 J.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린 작품으로, 마놀리토 가포타스와 엘비라 린도의 작품들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역시 독자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목록에 올랐다. 스페인 전역에 걸쳐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스페인 출판조합 자료가 바탕이 된 이 목록은 스페인 출판조합 '독서 습관' 정보에 자세히 수록된다.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소설 영예 안은 《돈키호테》

한편, 노르웨이 북클럽과 노벨상 위원회는 54개국 1백명의 작가들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각각 10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절반이 넘는 작가들에 의해 최고의 작품에 선정됐다. 아울러 스페인 작가로는 비극의 천재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집시 민요집》이 포함되고, 라틴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의 《픽션들》, 멕시코 작가 후안 루포의 《페드로 파라모》, 콜롬비아 작가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과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추천됐다.

이번 설문은 현대 문학의 살아 있는 거장들과 노벨상 수상 작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추천작에는 유럽 작가들 작품이 3분의 2 이상을



사진은 현대 회화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돈키호테》.

차지하고 거의 절반이 20세기에 씌어졌다는 것과 여성 작가의 작품은 11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편협성 논란도 없지 않다.

이런 지적을 미리 염두에 둔 노르웨이 북클럽측은 1위인 《돈키호테》와 2위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외에 이 목록이 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리스, 포르투갈과 함께 유럽의 독서지수 하위국으로 분류된 스페인은 무척 고무된 분위기다. 그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출판계가 주도하는 다양한 독서 진흥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던 참이라 자국민의 독서지수를 올리는 계기로 해석하는 눈치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돈키호테》다”라는 나이지리아 작가 벤 오크리의 찬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에게엔 피카소도 가우디도 있다. 스페인, 새삼 그들의 언어의 힘과 문화의 힘이 강하게 다가서는 느낌이 왜일까. ■